

‘반려견 사건’ 후유증? 반쪽 된 슈퍼주니어

최시원, 여론부담? 일본 팬미팅 불참
SM 측 “드라마 촬영상 불가피” 해명
2년 만에 컴백 앞두고 6인 체제 부담
수입 내로 최시원 활동 여부 결정키로

부담이 컸던 탓일까.
슈퍼주니어 멤버 겸 연기자 최시원이 24~25일 이틀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엘프 재팬 페스티벌 2017 슈퍼 스포츠데이’ 팬미팅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행사 첫날인 24일 최시원을 제외하고 김희철, 이특, 신동 등 6명이 참여했고, 25일에도 최시원은 불참한다.
2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최시원이 드라마 촬영이 있어서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은 최근 서울의 유명 음식점 대표가 최시원 가족 반려견에 물린 뒤 사망한 사건과 무관치 않다. 이번 팬미팅은



반려견 사고 후 처음 펼치는 슈퍼주니어의 공식 활동이라, 최시원이 공개석상에 나서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년 만에 그룹 활동을 재개하며 공격적인 활동 행보를 펼칠 것이라는 슈퍼주니어 측의 계획과도 상

반되기 때문이다.

팬들에 대한 사과와 현지 행사 관계자 측의 양해로 팬미팅 참여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당장 11월6일 컴백과 관련해 슈퍼주니어 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슈퍼주니어 측은 컴백 전날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하며 어느 때보다 홍보에 열을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반려견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커지면서 최시원의 향후 행보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 사건이 일어난 후 최시원이 주연중인 tvN 드라마 ‘변혁의 사랑’의 인터넷 시청자게시판에는 최시원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드라마는 한창 방송 중이고, 시청자들과의 약속이라 제작진이 하차를 검토하기는 여려모로 무리가 있다.

남은 것은 슈퍼주니어 합류 여부다. 이 역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슈퍼주니어가 2년 만에

활동을 시작하고 11명의 멤버들 가운데 군 복무와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4명의 멤버가 활동을 하지 않는데다가 최시원까지 하차하면 전체 멤버 가운데 절반이 활동을 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 또 최시원이 그동안 그룹 활동에서 ‘센터’ 역할을 해오고 이번 활동에서도 비중이 높아, 팀 활동에서 빠지게 되면 슈퍼주니어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슈퍼주니어 측은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 하루 이틀 사이에 최시원의 활동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그래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물림 사망…반려견 혐오 분위기 확산
EBS ‘세나개’ 강형욱 대표 조언 재조명

유명 음식점 대표가 그룹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가족 반려견에 물린 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청자의 눈길을 새삼 모으는 프로그램이 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이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세나개)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매주 금요일 밤(10시45분) 본 방송하는 ‘세나개’는 2015년 3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이듬해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돼 현

재 시즌2까지 이어지며 시청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세나개’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고민하는 시청자의 출연 요청을 받아 이 가운데 출연자를 선정해 소개하고 이에 해결책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특히 반려견을 비롯해 다양한 동물이 등장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동물들을 단순한 예능과 오락의 소재로만 등장시키는 것과 대별된다는 점에서 ‘세나개’는 보는 재미와 함께 시청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의 또 다른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세나개’는 반려견 행동 전문가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조언으로 시청자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강형

욱 대표는 1999년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학교 훈련사 및 2005년 이후 호주와 일본, 노르웨이 등 훈련 연수 과정 등을 거쳐 반려견 행동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연기자 한고은이 ‘최시원 반려견 사건’ 직후 논란을 모은 SNS상에도 등장해 또 다른 화제를 모으며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기도 했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과 ‘라디오스타’ 등에도 출연해 시청자에게 낯익다. 그는 반려견에 관한 조언을 담은 칼럼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마녀의 법정’ 인기비결은 주인공 같은 게스트

5회 이명행·정인서 등 게스트 열연 화제
옴니버스 구성…매회 새 등장인물 눈길

월화극 정상을 달리는 KBS 2TV 드라마 ‘마녀의 법정’의 인기 비결 중 하나로 ‘게스트 출연자’가 꼽힌다. 이는 매회 에피소드의 등장인물의 존재감이 강렬하고 역할이 크다는 의미다.

‘마녀의 법정’은 정려원과 윤현민이 주인공이지만, 1회부터 이어지는 스토리의 연속성보다 에피소드들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펼쳐지는 방식이어서, 이야기에 따라 등장하는 ‘게스트 출연자’가 달라진다. 각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게스트들은 강렬한 연기력으로 드라마의 흐름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스트 연기자들은 23일 방송한 5회에서 인면수심의 의붓아버지를 연기한 이명행과 그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 역의 정인서이다. 극중 이명행의 비열한 표정 연기와 어린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캐릭터를 잘 소화한 정인서의 열연에 많은 시청자가 관심을 보였다. 인지도가 높지 않은 두 사람이지만 연기력 하나만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명행은 연극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고 있고, 정인서는 2011년 영화 ‘도가니’에 출연한 바 있다. 두 사람에게 앞서 3·4회에서 강상원, 2회



정인서

이명행

에서는 강경헌과 장정연이 제복 이상을 해내며 드라마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향후 등장할 또 다른 게스트 연기자들에게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제작진은 정도모 작가의 대본에 따라 향후 에피소드에 등장할 인물을 섭외 중이다. 섭외에서 최우선시하는 부분은 연기력이다. 대중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면 이름값은 개의치 않는다.

지병현 책임프로듀서는 “지금도 캐스팅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촬영과 캐스팅을 병행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캐릭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연기자를 찾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이들을 카메오나 특별출연, 단역이라고 칭하지 않는데, 이는 매회 주연역 할이 크고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전인권 등 스타들이 특별한 무대에 오른 까닭은

MBC ‘파업 지지’ 공연…김상중도 참여

가수 전인권과 그룹 DJ DOC, 장기하와 얼굴들 등 스타들이 ‘공정방송 회복’을 내세운 MBC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무대에 오른다. 또 연기자 김상중은 관련 지지 영상으로 힘을 보탰다. 이들 외에도 스타들의 파업 지지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전인권이 이끄는 전인권 밴드와 그룹 DJ DOC,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 혁오, 바버렛츠 등 스타급 가수들이 25일 오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에 출연해 공연을 펼친다.

이번 무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분부가 ‘공정방송 회복’과 이를 위한 김장겸 MBC 사장의



전인권

퇴직을 촉구하며 9월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개최하는 행사. 모든 시민에게 무료 공개한다.

이들과 함께 연기자 김상중은 파업을 지지하는 응원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이날 무대에서 공개되는 영상을 통해 김상중은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다운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MBC노조 측은 “김상중 외에도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혀 향후 스타들의 잇단 지지 선언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윤여수 전문기자

연예현장.jpg

김아중의 ‘명불허전’ 패션감각



연기자 김아중이 팬 사인회에 나서 남다른 패션 감각을 뽐냈다.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명불허전’에서 선보인 감각적인 의상으로 여성 팬들의 구매욕을 자극시켰던 김아중은 24일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영블라자에서 열린 한 여성 의류 브랜드 팬 사인회 행사에서도 패드라와 체크 코트, 데님 팬츠, 퍼 머플러로 세련된 스타일을 선보여 눈길을 모았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숫자뉴스

20만 7581장

트와이스 일본 데뷔 싱글 첫 주 판매량이다. 18일 발표된 첫 싱글 ‘원모어 타임’은 22일까지 이 같은 판매량으로 오리콘 주간차트 1위에 올랐다. 이는 역대 해외 아티스트 데뷔 싱글 초동(발매 첫 주 판매량) 최다 판매량 및 올해 일본에서 첫 싱글을 낸 아티스트를 통틀어 초동 최다 판매기록이다.

#해시태그 킷



‘무한걸스’ 리턴즈?

그야말로 대가적이다. MBC에브리원 ‘무한걸스’ 전 출연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07년 시즌1이 첫 선을 보인 뒤 2013년 시즌3으로 막을 내리고 4년 만이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어색함은커녕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진다. 우스꽝스러운 분장과 코믹한 표정도 여전하다. 이들은 ‘시청자가 뽑은 다시 보고 싶은 예능프로그램’ 1위를 차지해 24일 방송한 ‘비디오스타’에 출연했다.

백솔미 기자

#스포츠동아 #무한걸스 #4년만에재회 #송은이부터활동까지

이 노래

내 사랑 못난이

외모지상주의 연애시대 윤종신의 ‘못난이’ 찬가



‘윤종신표 발라드’가 가요계를 물들이는 가운데 과거 20여년 전 윤종신이 경쾌한 노래로 팬들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1위는 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이들이 즐겨 들었다. 굳이 남녀 성비를 따지자면 여성 팬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환호’를 받았다.

1995년 발표한 4집 ‘공존’의 세 번째 수록곡 ‘내 사랑 못난이’. 당시 스물여섯 청년 윤종신이 작사, 작곡했고 타이틀곡 ‘부디’ 못지않게 히트 쳤다. 이 곡이 화제를 모은 건 수록곡 중 유일하게 경쾌한 트랙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사가 일품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처음 이 노래 듣고 ‘욱’하는 마음이었다. 대체 육인지, 청춘인지 알 수 없는 가사가 여성들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나에겐 누구나 말하는 못생긴 여자친구 하나 있지/친구들은 그녀에게 첫인사로 인상 좋다 하지/그 후에도 친구들은 뻔히 여자친구 있는 내게 소꿉 받으려 나오라며 내 안에 그걸 무시하지/미인과 곁어가는 남자들의 표정엔 자부심이 가득하지/친구들과 만나면 으스스대지…’

자신의 ‘못생긴’ 여자친구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나무라면서 그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다. 비록 못생겼어도 마음만은 예쁜 여자친구가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얘기다. 여성들이 ‘욱’했던 이유는 굳이 여자의 못생긴 외모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노래가 히트 친 건, 가수가 ‘꽃미남’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조금 같은 외모의 남자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다면 ‘비호감’으로 낙인 찍혔을 수 있었을 것이다. 키도 크지 않고 뼈째 마른 가수가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과 애교를 담아 부르는 모습에 여성들도 가사에 자신을 이입해 즐거워곤 했다.

이정연 기자

편집 | 김창조·고창일 기자